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vol.12

한국 현대사진과 '현대사진연구회'

학술 컨퍼런스: 한국 현대사진과 '현대사진연구회'

_ 논문

한국 사진사 구술프로젝트: '현대사진연구회'

_ 구술 녹취문

관련 자료 소개

_ 원문 자료

_ '씨롱아루스'와 '현대사진연구회' 주요 회원 작품 소개

_ '씨롱아루스'와 '현대사진연구회' 연혁

_ 참고 문헌 목록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한국사진사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연구를 목적으로 2009년 1월 가현문화재단에서 설립한 학술연구기관입니다.

발 행 가현문화재단
 주 소 05545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4 한미타워 19층
 전 화 02-410-9123
 팩 스 02-418-1316
 웹사이트 http://photomuseum.or.kr
 이메일 research@photomuseum.or.kr

발행인 송영숙
 기 회 한국사진문화연구소
 편집인 최봉림, 김소희, 장정민
 녹취초교 종로속기사무소
 디자인 IANN
 출력인쇄 문성
 발행일 2016년 9월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자료를 기증해 주신 이영훈 선생님과
 원문 자료 및 참고 자료 제공에 협조해주신 박주석 선생님, 이문강 선생님, 『동아일보』, 『경향신문』에 감사드립니다.

© 2016 Korea Institute of Photography and Culture All rights reserved.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사진의 저작권은 한국사진문화연구소와 원저자에게 있으며,
 해당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s.

ISSN 2093-2731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한국 근현대 사진사와 관련된 사진 및 자료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기증된 자료는 사진문헌의 부재와 소실로 척박한 환경에 처해있는 한국사진사 연구에 귀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 원  Hanmi Science Co., Ltd.

5 서문

— 학술 컨퍼런스: 한국 현대사진과 ‘현대사진연구회’ 논문 자료

13 1950-60년대 아마추어 사진 단체와 사진 담론의 지형: ‘신선회’에서 ‘현대사진연구회’까지 / 박평중

29 ‘현대사진연구회’ 기관지 『사안』의 모더니즘 사진담론 분석 / 최봉림

43 황규태, 뉴 포토를 향하여: 1960-70년대 초기 사진을 중심으로 / 박상우

61 주명덕과 ‘현대사진연구회’ / 박주석

—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 ‘현대사진연구회’

79 구술면담 개요 및 일시, 장소

80 일러두기

83 구술 녹취문

— 관련 자료 소개

140 원문 자료

140 『사안』의 주요 기고문 발췌

190 일간지 자료

196 ‘짜롱아루스’와 ‘현대사진연구회’ 주요 회원 작품 소개

210 ‘짜롱아루스’와 ‘현대사진연구회’ 연혁

214 참고 문헌 목록

서문

김 소 희 /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연구원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2016년 한미사진미술관에서 열린 주명덕 개인전 《연(蓮) Padma》(2016.4.23-6.18)와 황규태 개인전 《Blow up America》(2016.6.25-8.13)를 계기로, 두 작가가 사진 활동 초창기에 몸담았던 ‘현대사진연구회(Modern Photography Society)’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현대사진연구회’를 한국 사진사와 연관지어 살펴보는 학술 컨퍼런스 《한국 현대사진과 ‘현대사진연구회’》를 지난 5월에 개최하고 이어서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 ‘현대사진연구회’를 7월에 한 차례 진행하였다.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12호는 학술 컨퍼런스 논문과 구술 녹취록을 ‘현대사진연구회’ 관련 자료들과 함께 정리해 수록한다.

‘현대사진연구회’는 1950년대 이후 한국 현대사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에서 태동했다. ‘현대사진연구회’는 리얼리즘 사진의 편협성을 극복하려는 ‘싸롱아루스(Salon Ars, 1960)’의 예술적 노선을 계승하면서 서양의 모더니즘 미학을 연구했다. 정기전에서 그 성과를 발표하였고, 기관지 『사안』을 발행해 한국 사진계의 미학적 논쟁을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다. 대학교 재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사 및 은행원 등 다양한 계층의 지식인들로 구성된 ‘현대사진연구회’는 한국 사진계의 세대교체는 물론 지성화의 출발점이 되었다. ‘현대사진연구회’는 사진기자를 다수 배출했는데, 『월간중앙』의 주명덕, 『경향신문』의 황규태, 이창환, 『동아일보』의 조천용, 『여상』의 박영숙, 『여원』의 민경자, 『세계일보』 김효열 등이었다. 이후 박영숙, 주명덕, 황규태 등은 한국 현대사진의 주요 사진가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현대사진연구회’는 1967년 와해되어 그 명맥을 지속하지 못했다. 5여 년의 길지 않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대사진연구회’의 활동에 주목하는 것은 이 단체가 1960년대 한국 모더니즘 담론과 함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리얼리즘 사진으로 귀착된 1970-80년대 한국 현대사진의 지형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현대사진연구회’의 주요 인물과 활동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한국 현대사진과 ‘현대사진연구회’』 자료집을 기획하게 되었다.

‘현대사진연구회’의 창립과 해체 그리고 주요 활동 사항

‘현대사진연구회’는 1961년 ‘싸롱아루스’에 의해 결성되었다. 젊은 아마추어들이 ‘싸롱아루스’로 모이자, ‘싸롱아루스’는 이들을 규합해 하위 연구기관으로 ‘현대사진연구회’를 창설한 것이다. ‘현대사진연구회’는 태생적으로 ‘싸롱아루스’와 공생의 관계에서 운영되었다. ‘싸롱아루스’는 지도부로서

신진을 육성하고, '현대사진연구회'는 '씨롱아루스'에게 사사하면서 사진 이력을 쌓았다. 두 단체는 서로 간의 승급과 강급이 가능했고 주요 강연회 및 회원전을 함께 개최했다. 오히려 '씨롱아루스'는 1961년 개최한 제1회전 이후에는 '현대사진연구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씨롱아루스'의 주요 인물로는 김열수, 김행오(1927-2014), 이상규, 이형록(1917-2011), 정범태(1928-)가 있었고, 1965년 이후에는 '현대사진연구회'의 이영훈(1941-)과 전몽각(1931-2006)이 '씨롱아루스'에 합류했다. 이들은 '현대사진연구회'의 작품심사는 물론이고 『사안』의 주요 필진으로 활약했다. 그러나 '씨롱아루스' 역시 사진 전문 교육을 거치지 않은 아마추어 출신들로, 서양 사진경향의 수용을 미국 잡지와 서적에만 의존해 그 미학적 깊이에는 한계가 있었다. '씨롱아루스'는 1967년 '현대사진연구회'가 와해되자, 이 단체와 함께 사라졌다.

'현대사진연구회'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기전 개최이다. '현대사진연구회'는 1962년 첫 번째 전시회를 시작으로 1963년에 제2회전을 개최했고, 1년 후인 1965년에 제3회전을, 1966년에 제4회전을 개최했다. 이후 1972년까지 여덟 번의 정기전을 가지면서 활동의 막을 내렸다. 두 번째는 강연회 및 좌담회 주최이다. '현대사진연구회'는 사진 전문 교육기관이나 시설이 부재했던 1960년대에 미학강좌와 세미나 그리고 사진좌담회 등을 개최해 아마추어 사진가들의 미학적 이해를 도모했다. 1964년에는 미술평론가 이경성, 서양화가 박서보, 한국창작사진협회장 임응식을 초청해 미술강좌를 개최했고, 1965년에는 임응식, 서양화가 황염수, '씨롱아루스'의 이형록, 김행오, 전몽각, 이상규, 이영훈이 《사진예술의 본질과 지향점》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같은 해 개설한 미학강좌에서는 사진과 미술사를 함께 논의했다. 1966년에는 미국의 월간 잡지 『파퓰러 포토그래피(Popular Photography)』의 편집장 브루스 다운즈(Bruce Downes)의 내한 세미나를 개최해 한국 사단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세 번째는 기관지 『사안(斜眼)』의 발행이다. '현대사진연구회'와 '씨롱아루스'는 1964년 6월 기관지 『사안』을 공동으로 창간했다. 『사안』은 사진 기법 소개, 사진논평, 사단소식 및 회원 동정 등 기존의 한국 사진잡지의 편집형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1957년 『사진문화』가 정간된 후 1964년 『캐머러 세대』의 단행본을 제외하고, 1966년 『사진예술』(대한사진문화사)이 발행되기까지 사진잡지가 부재했던 시기에 『사안』이 다루고 있는 몇몇의 글들은 당시 한국 사진계의 제 문제와 사진담론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사안』은 1967년 '현대사진연구회'의 와해로 발행이 중단되었다가 1971년 B4 크기의 『현대사연(現代寫研)』으로 창간되었다. 그러나 이후 발행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현대사진연구회'의 출판작들은 리얼리즘 계열과 유럽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이 혼재되어 있었다. 회원들은 새로운 시각언어를 탐구하기 위해 다양한 사진기법을 자유롭게 연구했다. 그러나 1965년 제3회전에는 실험적인 노선은 약화되고 리얼리즘의 경향으로 치우치는 양상을 보였다. 1965년부터 '씨롱아루스'와 '현대사진연구회' 회원 다수는 '한국창작사진협회'의 정기전에 참여했다. 당시의 출판작을 모두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임응식의 '생활주의 리얼리즘'을 계승한 '한국창작사

진협회'의 활동에서 다양한 창작방식을 고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현대사진연구회'의 출판작은 '현대사진연구회' 제1회와 제2회 전시 팸플릿에 수록된 작품 도판, 『66년 한국사진연감』의 작가별 작품소개 그리고 『캐머러 세대』(1964) 및 『포토그래피』(1966)와 『사진예술』(1966-67)의 전시 소개 지면에서 단편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그 이후 '현대사진연구회'는 이창환 회장과 이상규, 이형록 고문체제로 1972년까지 존속되었다. 그러나 1967년 당시 회장이던 김선홍을 위시해 주요 회원들이 '청록회(靑綠會)'를 결성하면서 사실상 해체되었다.

《한국 현대사진과 '현대사진연구회'》 학술 컨퍼런스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현대사진연구회'와 한국 사진사에 관한 학술적 검토를 위해 명지대학교 박주석 교수, 중부대학교 박상우 교수,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최봉림 소장, 중앙대학교 박평종 교수를 초청하여 2016년 5월 28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미타워 2층에서 《한국 현대사진과 '현대사진연구회'》 학술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컨퍼런스는 크게 작가론과 한국 현대사진의 지형에 대한 탐색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박평종 교수는 '신선회'에서 '현대사진연구회'로 이어지는 1950-60년대의 예술사진 클럽을 분석하고 그 사진적 경향에 관해 논의했고, 최봉림 소장은 '현대사진연구회'의 기관지 『사안』의 사진담론을 모더니즘 미학과 관련하여 분석하면서 1960년대 한국사진의 이론적 상황을 짚어나갔다. 다음으로 박주석 교수는 '현대사진연구회'에서 논의된 리얼리즘 사진론과 관련하여 주명덕의 다큐멘터리 사진을 분석했으며, 박상우 교수는 국내외 사진의 흐름을 통해 황규태의 초기 실험적 작품들이 가지는 의미를 재조명했다. 이후 종합토론은 계원예술대학교 이영준 교수의 진행하에 발표자들이 패널로 참여해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 토론에서는 1950년대 이후 한국 현대사진의 경향, 한국 사진사에서 반복적으로 오용된 사진 개념과 용어의 문제, 예술사조에 의한 사진의 범주화 문제 등에 관한 논의가 오갔다.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 '현대사진연구회'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학술 컨퍼런스에 이어서 '현대사진연구회'의 문헌과 자료의 부족을 보충하고자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 '현대사진연구회'를 1회 진행했다. 구술면담은 '현대사진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던 박영숙(트렁크 갤러리 대표, 사진작가), 이영훈, 조천용(전 시사저널 사진위원), 주명덕(사진작가), 황규태(사진작가) 선생을 모시고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최봉림 소장의 진행으로, 7월 6일 한미타워 2층 세미나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번 좌담에서는 구술자들의 입회 동기와 '현대사진연구회'의 창설 배경, '현대사진연구회'의 주요 인물 및 활동 사항, 사진경향 연구, 한국 사진계와의 관계 및 해산 과정 등에 관한 회고를 들을 수 있었다.